

1. 시작

안녕하세요. 제31회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000입니다. 저는 경력 공무원으로서 2차 시험 일부 면제 대상자입니다.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던 중, 누군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법무사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2. 수험기간 및 점수

(1) 수험기간

수험 준비는 2024년 12월 말경 박문각 이혁준 교수님의 민사소송법 강의를 수강하며 시작하였습니다.

(2) 취득점수

시험명	제31회 법무사 제2차 시험
응시자명	
주민등록번호	
응시번호	900044

과목명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서류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작성
점수				41.5	10	42	21

평균	57.25
합격선	52.42
합격여부	합격

3. 공부방법

(1) 수험생활

수험생활이 시작된 이후 2차 시험을 보기 전까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하였습니다.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박문각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였고, 퇴근 후에는 그날 들은 강의를 복습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당시에는 집에서 회사까지 왕복 3시간 정도가 소요되어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집중이 잘 되지 않은 날에는 퇴근 후 2배속으로 다시 강의를 들으며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날 들은 강의에 맞추어 복습을 마친 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집과 가까운 곳으로 발령을 받았고, 어느 정도 강의를 수강한 이후에는 주로 퇴근 후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18시에 퇴근하면 집에서 간단히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은 뒤 바로 독서실로 이동하여, 19시에는 자리에 앉아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3회 정도 헬스장에서 30분씩 운동을 하며 체력 관리에도 신경 썼습니다.

평일에는 퇴근 후 순공시간 4시간 이상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고, 주말에는 순공시간 8시간 이상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순공시간을 체크한 이유는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고,

실제로 공부에 집중할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평일에는 잠자는 시간만 되기를 바라며 공부했고, 주말에는 점심·저녁 시간과 잠자는 시간만 기다리며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공부가 잘 되지 않거나 공부 방법이 맞는지 불안할 때에는 먼저 합격하신 분들의 합격수기를 읽었습니다. 항상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을까'라는 불안이 있었는데, 합격수기를 읽으며 방향을 점검하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2) 공부방법

저는 박문각 학원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 공부하였습니다. 입문강의와 예비강의를 모두 수강하였고, 그날 들은 강의는 가능하면 그날 복습을 마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야근 등으로 시간이 부족한 날에는 주말을 활용해 복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중요한 판례는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노력하였고, 민사소송법은 이혁준 교수님의 두문자 자료를, 부동산등기법은 김기찬 교수님의 목차를 중심으로 꾸준히 암기하였습니다.

2순환부터는 모든 모의고사 첨삭에 참여하려고 노력하였고, 2순환과 3순환에서 거의 모든 모의고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 배분 연습과 함께 어느 정도 작성해야 어느 수준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차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는 사례 문제를 풀기보다는 목차를 잡는 연습에 집중하였습니다. 문제를 보고 목차를 작성한 뒤, 내용은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1)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이혁준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하며 매일 복습하였습니다. 중요한 판례는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노력하였고, 기본서를 2회독한 이후에는 사례집을 구매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입문·예비 과정에서 제공된 사례 문제도 가능한 한 모두 보려고 하였습니다. 사례집 역시 2회독하였습니다.

공부 방법은 답안지를 보고 먼저 내용을 암기한 후, 직접 글로 써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외웠다고 생각해도 책을 덮으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괴로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 복습하였습니다. 이혁준 교수님의 두문자 자료도 시간 날 때마다 보며 암기하였습니다.

2순환에서 처음 모의고사를 접했는데, 사례집을 공부했음에도 실제로 답안을 작성하려고 하면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보고 외운 후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연습하였습니다. 점수는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고, 3순환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의고사 점수를 확인하면 등수까지 함께 나와 마음이 힘들었지만, 어느 합격수기에서 본 것처럼 점수에 크게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습을 이어갔습니다. 시험을 앞두고는 어느 정도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혁준 교수님께서 “문제를 풀고 시간이 남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무조건 더 쓰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 실제 시험장에서도 법전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활용해 답안을 작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서류

민사소송서류는 이천교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설명이

재미있었고, 특히 “다 똑같다.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모른다”라는 말씀은 수험생활 내내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고, 실제 시험에서도 민사소송서류 문제를 보고 ‘아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남들도 다 풀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며, 형식을 갖추는 데 집중하고 민사소송법 과목에 더 주력할 수 있었습니다.

나름 논리를 만든 후 피고를 특정하였는데, 아무리 찾아도 주민등록번호를 찾을 수가 없었고 도중에 바꾸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여 그냥 ‘711111-XXXXXXX’으로 기재하였고, 청구취지, 청구원인도 제가 만든 논리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물론 다 틀렸지만 그래도 형식은 갖추었으니 5점은 받겠지 했는데, 예상보다 5점이 높은 10점이 나와 놀랐습니다.

3) 부동산등기법 및 등기신청서류작성

부동산등기법은 가장 힘들었던 과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강의 4개를 들으면 복습을 마칠 수 없어, 2개씩 수강하며 복습을 병행하였습니다. 김기찬 교수님께서 조문을 강조하셔서 틈날 때마다 조문을 읽었고, 교수님의 목차도 잊지 않도록 수시로 반복하였습니다.

2순환과 3순환 모의고사에도 모두 참여하려고 노력하였고, 마지막에는 2·3순환 모의고사를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등기신청서류작성 과목은 김기찬 교수님의 도식화된 첨부서류 자료 덕분에 후반부에는 부담이 가장 적은 과목이 되었습니다. 2·3순환 문제를 반복해서 복습하였고, 이후에는 기본서도 조금씩 참고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시험에서는 항상 놓치던 ‘매매목록’을 또 놓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서류 과목보다는 부동산등기법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고, 30점 만점이 아닌 20~25점을 목표로 공부하였습니다. 실제 점수 21점을 확인하고 만족하였습니다.

4. 수험생활을 마치며

시험 공부를 하며 전 과목을 완벽히 준비하여 합격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육아를 병행하며 공부하신 분들의 의지는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합격자 발표 전까지의 3개월은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발표일이 다가올수록 민사서류 과목에서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던 부분과 각 과목에서 놓친 문제들이 계속 떠올라 불안했습니다. 합격자 발표 당일에는 도저히 회사에 있을 수 없어 조퇴를 하고, 집에서 합격자 명단을 보며 몇 번이나 제 수험번호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2·3순환 모의고사를 보던 시기에는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느 합격수기에서 본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문장이 큰 힘이 되어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제 합격수기가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험기간 동안 묵묵히 뒷바라지해 준 제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